

# 코닥, 드루파 2012서 토털 솔루션 업체 명성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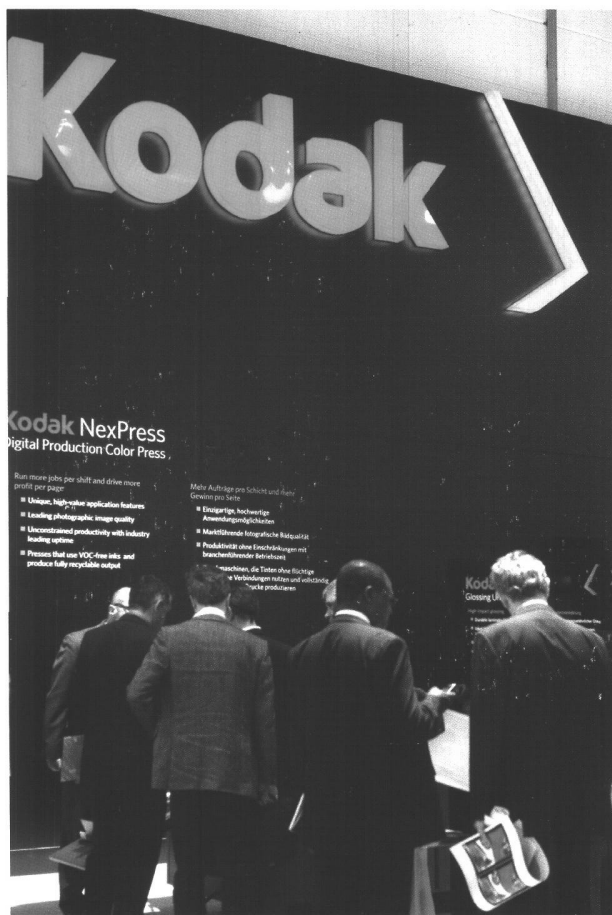
코닥은 드루파2012를 통해 가장 광범위하고 짜임새 있는 토털 프린팅 솔루션 업체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 오프셋 솔루션·강화된 워크플로

코닥은 친환경 제품을 원하는 상업인쇄사와 출판사에 두 종류의 코닥SONORA XP 무처리 판재를 제안했다. 이 판재는 뛰어난 품질, 생산성으로 기존 판재 못지않은 인쇄 성능을 실현하고, 능률적인 판재 제작, 작업 비용 절약, 환경 영향 저하의 장점을 제공한다. 코닥 매그너스 800 플레이트세터는 환경적인 면에서 더욱 개선된 제품으로 전원 절약 모드, 원격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더욱 빨라진 작업 속도로 생산성이 향상됐다. 코닥 애치브 올인원 CTP 시스템은 코닥의 최신 써멀 이미징, 플레이트 기술로 신흥 시장의 상업 인쇄 사업자들이 쉽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CTP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닥 프리너지 소프트웨어6, 아이패드 기기를 위한 특별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코닥 인사이트 프리프레스 포털 소프트웨어, 코닥 컬러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워크플로도 제안했다. 이 도구들은 작업 스케줄과 자원 관리를 자동화하고, 수동으로 이뤄졌던 작업 과정을 능률화함으로써 디지털과 하이브리드 프린팅 환경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코



닥 인텔리전트 프리프레스 매니저 2.0도 주목받을 만하다. 상업인쇄사들은 인텔리전트 프리프레스 매니저 2.0은 차세대 통합 서비스를 통해 프리프레스 시스템으로부터 더 높은 생산성과 최고의 품질,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 Mini Interview Lois Lebegue 코닥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매니징 디렉터



### 디지털·패키징 분야서 한국시장 기대 커

#### 코닥의 강점은?

코닥은 프린팅 관련 토털 솔루션 업체로서 출판, 패키징, 상업용 프린팅 분야에서 활동이 강하다. 앞으로는 디지털과 패키징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성장이 기대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성은?

현재 중국이나 인도 등은 연간 30~4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호주 등

도 코닥의 기존 고객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을 도모하면서 성장세를 높여가고 있다. 플렉소 등 패키징 시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분야는 트랜잭션 시장에 강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닥은 기존의 업체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프린팅 시장 전망은?

출판 시장은 스마트 미디어와 전자출판의 도전 때문에 고전이 예상되지만, 패키징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프린팅 시장에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패키징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